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전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모집 인증분야 추가로 지원 대상 확대... 최대 1억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 받는 데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도 직접수출액

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국 15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신평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1차 모집은 388개의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평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서면평가 후 전북지방중기청 선정위원회를 통해 8월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은 관리기관과 협약 후 2년 동안 인증획득에 따른 지원을 받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도 실시한다.

심화교육 수료기업은 해외인증규격 1건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인증 획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인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인증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김장근 본부장이 4일 덕진구에 본사를 둔 (주)강동오케익을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을”

전북농협 김장근 본부장, 우수 농식품기업 현장방문 행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4일 덕진구에 본사를 둔 (주)강동오케익을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품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제빵전문기업 (주)강동오케익은 1989년 전주 중앙동에서 시작해 50년째 오랜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은 지역 우수기업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농식품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협은행과 거래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여러모로 살펴보고자”며, “이를 통해 참깨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전주시민 대상 '작가탄생 프로젝트' 진행

국민연금공단 전주시평생학습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주시민과 이천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작가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노후준비 스케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 말부터는 작가탄생 프로젝트를 통해 신중년에 특화된 실천형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작가탄생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강의를 듣고 글을 쓰며 1인당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실천교육과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개설돼 현재 4기 수료생까지 배출했으며 200여권의 책이 제작됐다.

커리큘럼은 자기만의 콘텐츠, 브랜딩 강연, 원고 편집 교육 및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수료 후 커뮤니티를 구

성해 글을 쓰고 완성된 책은 오는 8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제14회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선보인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713-5922)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전북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과제를 내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수요처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개발기간 2년으로 국내 수요처 과제는 기술개발비의 60%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해외 수요처 과제는 기술개발비의 65%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민간공동투자 과제는 기술개발비의 37.5%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민간부담금 확대, 자율주행 등 혁신성장분야의 선점을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63-210-6442)로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진환)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수원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토론회를 열었다.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위한 변화와 도전 모색한다

aT, 기능 강화 혁신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수원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T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토론회를 열었다.

aT 임원 및 간부가 참석한 토론회는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을 위한 혁신·미래과제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한 aT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혁신·포용사회·지속가능 3대 분야의 6개 과제인 ▲지방분권 시대 aT 기능강화 방안 ▲신성장 미래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등의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aT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의견조율을 거쳐 향후 중장기 경영

목표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한 우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T가 어떻게 변화하고 도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aT 사업 속에서 실현하고 100년 aT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개공,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진환)는 순창군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대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함에 따라, 4일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순창읍 주택수요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순창읍 순화

리 21번지 일원 9만8866㎡의 부지에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공공청사,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620세대, 인구 1302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용지보상 및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202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전주대 사대부고서 '인문학강좌' 호응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제24회 '2019 JB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한국예술원 성우과 겸임교수이자 만화 '카드캡터 체리'의 체리 역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문선희 성우가 초청됐다.

“꿈을 이루어가는 세 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전주대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250여명이 참여했다.

문 강사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 순간, 마주한 사람들의 열정에서 공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8년 차 성우로서 도전에 망설이며 살았으나 암을 극복하고 강에 도전하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